

## 《인간인식의 불완전성》과 《진화와 준칙》에 대한 현대부르조아 《진화론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반동성

정 광 수

자본주의는 지구상에 출현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에 고유한 여러가지 모순들로 하여 극심한 경제공황과 파국적인 사회경제적위기를 겪고있으며 멸망의 나락으로 줄달음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조아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하에서도 경제공황을 비롯한 사회경제적위기를 없애고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이룩할수 있는듯이 떠들면서 여러가지 기만적이며 반동적인 어용리론들을 조작류포시키고있다. 그러한 경제리론들중의 하나가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정책을 리론적으로 안받침하고있는 현대부르조아《진화론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경제리론분야에서 주되는 투쟁대상은 현대부르조아경제리론입니다. 현대부르조아경제리론의 반동성을 똑똑히 알아야 경제리론분야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고 로동계급의 경제리론의 순결성을 고수할수 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7권 262페이지)

현대부르조아《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하나인 《진화론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케인즈의 《조절적자본주의》에 기초한 《개입주의》적인 경제정책의 결과 1974년—1975년 세계경제공황과 같은 경제위기를 겪게 되자 그 원인이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에 있다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의 최신변종인 현대부르조아《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한 류파로 출현하였다.

현대부르조아《진화론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은 생물학적진화론을 경제현상에 적용하여 사회발전과정의 합법칙성을 외곡한데 기초하여 자본주의의 영원성을 설교하고 사회주의를 비방증상하며 그 무슨 《개혁》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간섭의 결과 초래된 사회경제적위기를 《해결》할수 있는듯이 주장하는 반동적인 리론이다.

현대부르조아《진화론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은 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위기와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됨에 따라 그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려는 독점자본가들을 비롯한 부르조아계급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인간인식의 불완전성》과 《진화와 준칙》이라는 반동적인 리론을 설교하였다.

《진화론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대표자인 오스트리아의 반동적인 경제학자인 하이예크(1899년—1992년)는 《개인의 자유》, 자유방임의 시장경제, 사유재산제도와 같은 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 사회주의는 물론이고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을 지지하는 《복지국가》도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제도를 억압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반사회주의자이다. 그는 자유방임의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순수 리론경제학을 주장하였으며 오스트리아학파를 대표하여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현대부르조아《진화론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을 내놓았다.

하이예크는 《인간인식의 불완전성》과 《진화와 준칙》에 대한 설교로서 사회적인간의

본성을 외곡한데 기초하여 사회주의를 비방증상하고 자본주의제도를 변호하였다.

무엇보다먼저 하이예크는 《인간인식의 불완전성》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그는 존 슈트아트 밀이나 로버트슨과 마찬가지로 《인간인식의 불완전성》을 중시하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은데 기초하여 자기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지난 시기 밀이 《인간의 불완전성》을 《지적능력의 불완전성》과 《도덕적불완전성》의 두가지 측면을 중시하였는데 하이예크는 《도덕적불완전성》에 대하여서는 논하지 않고 《지적능력의 불완전성》만을 중시하면서 그것을 《인간의 사고능력의 불완전성》과 《지식의 불완전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사고능력의 불완전성》이란 인간이 사물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지 못하다는것이며 《지식의 불완전성》이란 인간이 추상적인 일반적사실들에 대한 이론과 구체적인 특정한 사실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소유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이다.

인류사회 첫 시기에는 필요한 정보의 량이 많지 않기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알고있는것이 가능할수도 있지만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여 정보의 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는 구체적사실들에 대한 정보가 사회의 여러 성원들에게 갈라져있기때문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이것을 《지식의 분산》이라고 하였고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개인이나 집단이 모두 가지는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구조적무지》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분업과 협업이 매우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지식의 분산이 낡은 사회에서보다 더 심하며 이로 인하여 《구조적무지》의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하이예크가 말한 인간의 《사고능력의 불완전성》과 《지식의 불완전성》에 관한 주장은 사회적인간의 창조적능력을 부인하는 반동적궤변이다.

사람은 혼자서가 아니라 사회적관계로 결합되어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살며 활동해나간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인것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지게 된다. 창조적능력은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새로운것을 만들어내고 부단히 발전시켜나가는 사람의 능력이다. 사람은 사회적으로 서로의 지혜를 교환하고 협력하면서 위력한 창조적능력을 소유하였다. 사람은 사회적협력의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강화되는 창조적능력으로 물질문화적재부를 창조하고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벌여왔다.

인류사회초기에 사람의 창조적능력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주위 세계에 대한 개조과정에 보다 높은 자주적요구를 제기하고 창조적능력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자기의 의사에 맞게 자연과 사회와 세계를 개조변혁해왔다. 과학과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오늘 사람이 알고있어야 할 자료의 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의 창조적능력은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하이예크는 현대사회에서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국가에 의하여 많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있기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크게 증대한것이 현대국가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사회주의국가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사회에서도 나타나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하이예크는 사회건설에서 성공하자면 두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새로운 사회에서 있게 되는 구체적현상과 사실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간이 모두

알고있어야 한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건설에 필요한 인간의 사고능력이라고 하였다.

첫번째 조건인 새로운 사회에서 있게 되는 구체적현상과 사실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간이 모두 알고있어야 한는데 대한 문제는 《인간인식의 불완전성》으로부터 실현될수 없다고 보았다.

두번째 조건인 인간의 사고능력에 관한 문제도 하이에크는 주위환경과의 접촉을 통하여 끊임없이 적응하고 진화한다는 《진화론적합리주의》로부터 실현될수 없다고 보았다.

인간의 사고능력에 관한 문제를 처음 확립한 사람은 프랑스 합리주의의 대표자인 데카르트(Rene Descartes, 1596년-1650년)이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정신은 자연과 사회 등 주위환경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었기때문에 인간의 리성의 힘을 확신하는데로부터 완전한 리성과 완전한 정보에 기초한 《설계주의적합리주의》를 내놓았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인간정신을 사회환경의 산물로 보았기때문에 데카르트의 생각에 기초한 《설계주의적합리주의》는 오류라고 비판하였다. 인간의 정신은 주위환경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주위환경과의 접촉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적응하고 진화하며 인간의 리성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고 본 하이에크는 《설계주의적합리주의》는 완전한 리성과 완전한 정보라는 틀린 가정에 립각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면서 데카르트의 《설계주의적합리주의》에 비한 자기의 합리주의를 《진화론적합리주의》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와 《복지국가》 등 20세기에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많은 제도가 이러한 잘못된 《설계주의적합리주의》의 산물이며 이 제도들은 인간사회를 개선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권력을 리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고 시장경제의 효를 떨구어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인식의 불완전성》으로부터 이 두가지 조건이 모두 달성될수 없기때문에 이러한 인간이 의도적으로 건설한 사회는 불완전하며 결과가 략관적이지 못하다는것이 하이에크의 주장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는 사회적속성을 가지며 이로 하여 자기의 요구를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해나간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사회적속성으로부터 주위세계의 사물현상을 파악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개조하며 새로운 구조와 속성, 질을 가진 사물현상으로 만든다. 사람은 주위세계의 사물현상들을 개조하여 새로운 종자나 새로운 동식물을 만들고 새로운 기계나 기재를 발명할뿐아니라 새로운 사상이나 지식, 새로운 사회제도를 창조한다.

사회발전과정은 인간의 발전과정이며 사회발전수준은 인간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간의 인식이 불완전하기때문에 인간에 의한 사회발전이 잘못된것이라고 하는것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부인하는것이다. 《인간인식의 불완전성》에 대한 하이에크의 견해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개조활동이 폭넓고 깊이있게 전개되고있는데 겹을 먹고 인간의 리성을 멸시하고 합법칙적인것, 론리적인것을 배격하며 비합리적인 의지나 감정, 맹목적인 본능과 같은것을 절대화하고 비정상적인것, 기형적인것, 인과적련관이 없는것, 신비스러운것으로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외곡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인식의 불완전성》에 대한 하이에크의 리론은 사회발전과정의 합법칙성을 부인하고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개조활동이 폭넓고 깊이있게 전개되는데 겹

을 먹고 이를 가로막기 위하여 조작한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궤변이다.

다음으로 하이에크는 《진화와 준칙》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하이에크는 인간은 리성과 지식이 불완전하기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은 그것에 의존할 수 없고 일정한 준칙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준칙》은 여러가지 정황과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반응하도록 하는 일정한 행동양식과 그것이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관습이라고 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준칙에 따라 행동할 때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수 있을것이라는것도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데 그것은 리성과 지식이 불충분하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정황과 조건이 발생하면 일단 문화를 통하여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준칙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나라마다 전해오는 문화적유산은 바라는 결과를 얻을수 있다는것이 알려졌기때문에 채택된것이 아니라 사람들집단을 널리 보급된 행동의 습관인 준칙의 복합체로 구성한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는것은 동물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세계에서도 사고의 과정이 아니라 널리 알려진 습관의 관찰과 보급, 전달 및 발전의 과정이라고 하면서 그중에서 성공이 증명된 《준칙》이 다시 문화를 통하여 조금씩 고쳐지면서 다음세대로 물려진다고 즉 《준칙》은 《진화》한다고 하였다.

하이에크는 《인간은 리성의 동물이라고 자부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의식하지도 못하면서 습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일이 많은데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면서 여러 세대를 거쳐서 집단의 생존의 기회를 증가시킨다는것이 입증되면서 진화한 집단적행동습관이 준칙》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진화》의 과정은 인간의 의도적인 설계에 의한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치는 적자생존의 과정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하여가는 과정으로서 자연의 산물은 물론이고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모든 사회적산물도 인간의 의도적인 설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하였다.

사회발전과정을 인간의 창조적활동에 의한 발전과정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인 《진화》의 과정이라고 하는것은 사회발전력사를 외곡하는 반동적인것이다.

원시사회의 붕괴와 첫 계급사회인 노예사회의 붕괴, 신분적예속에서 벗어나려는 농민들의 반봉건투쟁에 의한 봉건사회의 멸망, 자본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한 자본주의사회의 멸망은 《진화》의 과정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의 발전에 의한 사회발전과정이다.

사회도 자연과 같이 진화에 의해서 발전한다는 주장을 사회진화론이라고 부른다. 사회진화론은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영국철학자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년-1903년)가 다윈의 생물학적진화론을 사회현상에 적용하여 만든것으로서 한때 널리 유행되었다가 인간의 륜리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사라졌던것을 하이에크가 다시 부활시켰다.

생물학적진화론을 사회현상에 적용하여 사회발전과정을 《진화》의 과정으로 본 하이에크의 진화론적분석방법은 완전히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것이다.

사회적존재로서 발전하려는 사람의 사회적속성은 단순히 육체적존재를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속성과는 질적으로 구별된다.

물론 진화론 그 자체는 과학이며 부인하여서는 안된다. 사람이 장구한 진화발전의 산물이라는것은 이미 오래전에 과학에 의하여 확증된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지만 사람의 사회적속성과 사회현상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다. 사회적존재로서 사람이 가지는 본질적속성을 생존하려는 본능적인 생물학적속성으로부터 설명하려는것은 사회적존재와 자연적존재, 사회적속성과 생물학적속성의 근본차이를 해소시키는것으로 되기때문에 부당하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속성은 생명물질일반이 가지고있는 단순히 육체적존재를 유지하려는 본질적속성과는 구별된다.

《인간인식의 불완전성》과 《진화와 준칙》에 대한 《진화론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사회적인간의 본질적특성을 외곡한데 기초하여 사회발전과정이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과정이라는것을 부인하려는데 있다.

하이에크는 사회적존재로서 사람이 가지는 본질적속성을 생존하려는 본능적인 생물학적속성으로부터 설명하면서 사회적존재와 자연적존재, 사회적속성과 생물학적속성의 근본차이를 해소시켰다. 인간의 정신은 주위환경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주위환경과의 접촉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적응하고 진화하는데 인간의 리성과 능력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그러한 인간이 세운 사회는 《인간의 자유》를 억누르고 시장경제의 효률을 떨구어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든다는것이다.

사람들은 사회적집단을 이룸으로써 거대한 힘과 위력을 지니게 되며 주위세계를 자기의 리익에 맞게 성과적으로 개조해나가게 된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서로 련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과정에 력사적으로 이루어진 선진사상과 과학기술지식, 경험을 체득하고 사회적인간의 풍모를 갖추게 되며 다양한 물질문화적재부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면서 세계와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간다. 사회적관계에 의해서만 사람은 자기의 힘을 개인의 힘과 지혜에는 비할바없는 위력하고 무한한 힘을 지닌 집단과 결합시켜 세계에 대한 지배와 개조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하이에크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는 본질적속성을 가지며 이로 하여 자기의 요구를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해나간다는것을 부인하려고 하였다.

《인간인식의 불완전성》과 《진화와 준칙》에 대한 《진화론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개인주의와 약육강식이 살판치는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을 변호하고 사회발전의 더 높은 단계인 사회주의를 비방중상하려는데 있다.

하이에크는 자연에서와 같이 사회에서도 사람들사이에 자유로운 경쟁이 벌어지는것은 필연적이며 자유경쟁이 사회발전의 원천이라고 설교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의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론리》를 합리화하여 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식하고 사회발전의 더 높은 단계인 사회주의를 비방중상함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가로막으려는 반동적인 설교이다.

사회주의가 진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리성과 지식이 불완전한 인간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진것이라고 하면서 인간사회를 개선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권력을 리용하여 개인들의 자유를 억누르고 시장경제의 효률을 떨구어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든다고 주장한 하이에크의 리론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적속성과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부인하고 사회발전의 더 높은 단계인 사회주의를 비방중상하기 위한 비과학

적이며 반동적인 이론이다. 사회주의는 자주성을 유린하는 온갖 착취사회를 반대하는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에 의하여 세워진 사회이며 이러한 사회주의제도는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참답게 보장해준다.

그러므로 진화론적분석방법은 생물학적운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과학적인 분석방법이지만 보다 높은 형태의 운동인 사회적운동에 대한 분석에는 적용할수 없는 제한적인 방법이다. 하이예크를 비롯한 부르조아변호론자들이 진화론적분석방법으로 사회현상을 해석하려는 목적은 자본주의, 제국주의에 고유한 생존경쟁의 《의의》를 과장하여 그것을 사회현상에까지 확장함으로써 착취계급의 정치적억압과 경제적착취,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자연스럽게 합리화하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가로막으려는데 있다.

자연에서와 같이 사회에서도 사람들사이에 자유로운 경쟁이 벌어지는것은 필연적이며 자유경쟁이 사회발전의 원천이라고 하는것은 약육강식의 생존경쟁과 개인주의에 기초한 착취사회,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성과 취약성을 가리우기 위한것이다.

이처럼 《진화론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출발점인 《인간인식의 불완전성》은 자본주의사회에 고유한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논리》를 합리화하여 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식하고 사회발전의 더 높은 단계인 사회주의를 비방중상함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가로막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실마리어 현대부르조아, 《진화론적신자유주의》